

교회 소식

2020년 표어:가서 제자 삼으라(마28:19-20)

2020년 5대실천:(1)주일성수(2)성경읽기(3)1인1사역 (4)1인1전도
(5)1일3.3.3기도①내자신의 영적성숙②교회부흥③전도대상자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가정에서 머물고 있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며
모든 성도여러분 영적 건강, 육적으로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및 모임안내

- 1.주일예배: 오전11시30분에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드림
- 2.새벽기도: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본문과 함께 개인별 QT
- 3.토요새벽기도: 오전 7시에 오디오파일(카톡으로전송)

●감사: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힘껏 예물을 드리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며 감사드립니다

●헌금안내:헌금은 매주 혹은 모아서 정진범장로님 주소로
보내 주시기바랍니다.

*Chin Chong(재정부장)

22449 Ainsworth Dr Los Altos ,CA 94024

11월 말씀 묵상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골3:16-17말씀

♥ 11 월생일 ♥

축하합니다
박종미(6) 김해심(24)
(날짜순서대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제자들교회

Disciples Christian Church

주후 2020년 11월 1일

2020-44호

www.disciplesk.org

주일예배

오전11시 30분

인도: 박춘배목사

*예배초청
Call to Worship

다같이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Hymn

288장

다같이

기 도
Prayer

박춘배목사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도자

봉 헌
Offering
Prayer

311장(1절)

다같이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행22:14-15

인도자

“바울의 간증”

설 교
Sermon

박춘배목사

*찬 송
Praise

549장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박춘배목사

* 표시는 일어서 주세요.

729 Morse St. San Jose, CA 95126 Tel 408)708-6182

설교노트

- 본문: 행22:14-15
- 제목: “바울의 간증”

서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왜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가?에 대해 자신의 간증을
통해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본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고
은혜 받을 말씀은?

첫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메시아)입니다
◇행22:6-8

둘째: 예수님을 만난 자는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자입니다
◇행22:10, 15. 행9:12-15. 행22:17-18, 21.

셋째: 예수님을 만난 자는 예수님만이 인생에서
모든 것임을 알고 사는 자입니다
◇ 행9:17-18, 빌3:7-9, 롬9:4-5, 히12:1

결론: 사도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유대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3가지 이유를 간증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사명을 주신 자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간증하며 열방에
예수그리스도를 전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토요일합예배

오전7시

인도 박춘배목사

오디오파일로 예배

새벽예배

가정에서 고린도후서
QT

11월 행사 안내

11월1일	주 일	썸머타임시작
7일	토 요 일	전교인모임(파크)
22일	주 일	추수감사주일
26일	목 요 일	추수감사일

봉사위원

대표기도			
안내위원			
봉헌위원			
친교/청소			

섬기는 이들

원로목사	박의훈	담임목사	박춘배
장로	정진범	찬양전도사	이귀남
성가지휘		교육전도사	임태욱
반주	정:허승현집사/부:박미경집사		
후원 및 선교지	중국 강신도 선교사 / 몽골 천강민 선교사 / 일본 박상영 선교사 니카라과아 김기선 선교사 / 멕시코 제동호 선교사 / 아프리카 김평육 선교사		